

자국 언어와 음악으로 세계 매료시킨 전설의 밴드

김세경의 월드뮤직

아일랜드 가족밴드 클라나드



1980년대 밴드 클라나드. 오른쪽 두번째가 감미로운 목소리의 객원 보컬 엔아다.

2019년 가을은 법무부장관 임용 건으로 전국이 들쭉들쭉하다. 음악을 논하면서 정치를 함께 이야기 하는 것만큼 내키지 않은 일이 없으므로 말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아버지의 존재, 의미에 대해 전 국민이 생각해 한다. 필자는 대학 입시에 실패해 재수를 했다. 아버진 화 한번 내지 않으셨다. 다만 어깨가 축 쳐진 당신 딸 위로하겠다고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다.

이문열(지금은 다른 얼굴이지만 그때만 해도 괜찮았다)의 '사색'이라는 책에 나온 글이다.

“나는 어렵고 힘든 삶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나는 지금 내 전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쓰고 있노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맙게도 아버지가 들려준 얘기를 두고두고 읊조리며 스스로 다짐했다. 1970~1980년에 전쟁 같은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한 시기를 살았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자화상 같은 것들이 아닐까? 정신적인 지주로 최선을 다해 당신들의 인생을 살며 자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등 토닥여주는 그런 의미로써의 아버지 말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살아냈던 저 먼 이국 땅의 아일랜드의 아버지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사실은 들을 때마다 가슴 뭉클하게 했던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떠올랐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1993년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제리 콘론이라는 실제 인물을 연기해 작품도 크게 흥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곰상을 수상하고 오스카에서는 감독상에 노미네이트됐다.

아일랜드 무장단체 IRA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무고한 제리 콘론과 그의 아버지까지 죄 없이 잡아들여 15년간 끔찍한 고문을 행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다. 테러 현장을 지나가던 젊은 히피였던 제리는 증거도 없이 영국에 끌려 들어가 일 년을 고문당한다. 죄를 인정하지 않자 연좌제로 아버지까지 잡아들이고 그 연로한 아버지는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숨을 거둔다. 결국 제리는 15년의 복역을 끝내고 1980년 석방되지만 감옥 문을 나서며 아이들의 발걸음은 한스럽기 그지없어 발을 뒹 수가 없었다. 평생을 감옥 밖에 있었던 어머니까지도 테러범의 아내와 어머니라는 오명을 쓰고 죽을 때까지 팔매를 당하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했다. 그들은 죽기 전까지 영국의 만행을 폭로하는 일을 계속했다.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했다.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난 수난을 당했지만 투쟁하고 지켜냈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와 동질적인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묘한 통환이랄까? 아일랜드의 음악 들은 들으면 어딘가 모를 감동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아일랜드의 언어와 아일랜드의 포크 음악을 다양한 장르로 승화시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아일랜드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린 전설적인 밴드

그래미 어워드를 포함해 영국 영화예술제, 최고의 음악인들만 대상으로하는 영국 이보르 노벨로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등에서 수상하면서 명성 입증



'아버지의 이름으로'에서 극중 아들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아버지 피트 포스스웨이트.

아련함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같은 영화를 보며 더욱 큰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닐까?

아일랜드는 8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살았다. 800년간 아일랜드는 잉글랜드로부터 지속적인 침략과 수탈, 식민 지배를 당했다.

아일랜드인을 아프리카의 흑인과 같은 수준의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하얀 흑인 또는 하얀 침팬지"라고 멸시했을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독립 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영국의 지배에 맞서 싸웠다.

우여곡절 끝에 독립을 얻긴 했지만,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다. 게다가 1920년대 무렵까지도 아일랜드 산업은 거의 근대화되지 않았고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아일랜드는 빈곤한 농업지역으로 남아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영국 독립 이후 30여 년간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고문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온 정치권이 시끄러워 티비를 틀기가 겁나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엄청난 역사 속 과오에 대한 참된 속죄나 사과 없이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며 기가 막힌 발언들을 우리나라에서 숨없이 내뿜고 있어 사실상 한일 관계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가파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9월까지지는 그래도 좀 덥겠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저녁 바람이 선선해져 옷깃을 여미게 만드나. 그러더니 이렇게도 하릴없이 몇 날이고 비가 쏟아지는 가을장마를 만나게 되니 사방군데 삭신이 쭈셔 몸이 끈끈한 것은 물론이고 가을이 될 때마다 이 싱송송한 마음은 어찌할 바가 없다.

이럴 때 듣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의 비극적 역사를 가진 나라 아일랜드의 켈트 음악이다. 이 아일랜드의 언어와 아일랜드의 포크 음악을 다양한 장르로 승화시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아일랜드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린 전설적인 밴드가 있었다. 1970년 도넬갈 카운티 출신 가족들이 한데 모여 만든 가족 밴드, 클라나드가 바로 그들이다.

1979년까지 세 개의 앨범을 내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후 미국에서 투어를 멋지게 마쳤으며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보컬과 키보드리스트였던 전설적인 뮤지션 엔아와도 함께 음반 작업을 했고 투어를 다녔다.

1982년부터 '마법의 반지'라는 곡을 포함한 해리의 게임에 주제곡이었던 앨범이 국제적인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켈틱과 팝을 환상적으로 조합한 음악으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1970년대 결성돼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그레미 어워드를 포함해 영국 영화예술제, 최고의 음악인들만 선정해서 발표하는 영국의 이보르 노벨로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등에서 수상하면서 그들의 명성은 높아졌다. 클라나드의 노래는 여섯 언어로 번역돼 불렸으며 영국 팝 차트10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클라나드가 밴드를 결성하고 바로 발표한 노래 중에 '프린세스 로얄'이라는 제목으로 1970년대 발표했다가 5년이 지난 후에 '미세스 맥더못'이라는 바꾼 제목으로 다시 발표한 곡이 있다.

격동의 2019년 가을 초입, 서글픈 우리네 평범한 아버지들의 역사 속에 묘한 슬픔을 느끼며 클라나드가 1973년에 발표했던 '미세스 맥더못'을 들어보자. 두 개의 만돌린과 테너 기타 음이 번갈아 가며 낮게 깔리는 그 음이 자꾸만 싱송송송 요동치는 이 마음 차분하게 가라 앉혀주는 묘약이 될 테니.

이런 날엔 이 곡, '미세스 맥더못'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막걸리 한 잔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신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이런 감성 터지는 날 아버지께 막걸리 힘을 빌려 그렇게 열심히 살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속삭이는 말 한마디 건네 볼수 있으니...

김세경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회의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문화강의 교수로 활동했다. 월드뮤직 애호가이자 전문가로 지역방송에서 대중에게 월드뮤직을 소개하는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호주에서 아트앤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공부 후 한류 지역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신진작가들과 외국인 화가들을 후원하는 전시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